별님, 여래가 되다

장지명 불화 작가 개인전
6월 14일까지 순창미술관
'칠성신앙' 현대적 재조명
불화 작가 단체전도 열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장지명 작가의 불화 '아름다운 날들'.

전통 불화 속 칠성신앙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전북 순창공립미술관은 5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장지명 불화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여래가 된 별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칠성신앙의 의미를 오늘의 시선으로 되새기며, 신행과 일상 속에서 이어져 온 발원의 마음을 조명한다.

칠성여래는 북두칠성을 상징하며 중생의 수명과 복덕을 관장하는 존재로 아주 오랜 세월 불교 신앙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특히 한국불교에서는 민간의 칠성신앙과 결합돼 가족의 안녕과 자손의 평안을 기원하는 생활 속 신앙으로 깊이 자리매김했다.

이번 전시는 옛 어머니들이 장독대에 정화수를 올려두고 북두칠성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올리던 모습을 중요한 서사로 삼는다. 맑은 물 위에 비친 별을 바라보며 올리던 기도는 곧 발원의 수행이었으며, 그 마음이 모여 별이 되고, 다시 여래의 형상으로 드러난다는 상징적 흐름을 작품으로 풀어낸다.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나무, 비단, 옻칠, 자개, 석채 등 전통 재료와 기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장엄함 속에서도 따뜻한 염원의 정서를 담아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불화를 단순한 예배 대상이 아닌, 수행과 발원의 마음을 비추는 하나의 방편으로 마주하게 된다.

장 작가는 "온 세계가 깃들어 있듯이,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 또한 이미 지혜와 자비를 품고 있음을 전하려 했다"면서 "부처의 세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대를 이어온 어머니들의 염원과 기도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피어 있는 불성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근 섬진강미술관에서는 현대 불화의 흐름을 이어가는 작가들의 단체전 '염원전'이 열린다. 두 전시는 모두 장지명 작가의 총괄 아래 기획되었으며, 전통 불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더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오늘날 불화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염원전'은 수행과 발원의 마음을 각기 다른 조형 언어로 풀어낸 작가들이 참여하여, 불화가 지닌 신앙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가 어떻게 현재에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동시 전시는 한국불교 전통 속에서 이어져 온 칠성신앙과 발원의 문화를 바탕으로, 개인의 기도와 공동의 염원이 어떻게 시각예술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조명한다. 관람객들은 두 공간을 통해 전통과 현대, 신앙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흐름을 경험할 수 있다. 단체전 역시 5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된다.

AI시대, 인간 의식 본질 논의한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5월 16일 봄 학술세미나

AI시대, 인간 의식의 본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는 5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줌(ZOOM)으로 '인공지능, 불교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주제로 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 속, 인간 의식의 본질을 논의하고 불교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1부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불교의 역할(AI부디즘연구소장 보일 스님) △지혜소설: 동서양 지혜 전통과 인간-AI의 공진화(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 △인공지능에게 듣는다: 현대인을 위한 초기불교(김재성 능인대학원대학교 명상상담학과 교수) 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알고리즘은 마음을 만질 수 있는가?: 디지털 치료제와 AI 심리치료의 가능성과 그림자(전봉희 창원 마음과마음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의식, 인공지능, 무아의 뇌과학(조철래 마음공감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발표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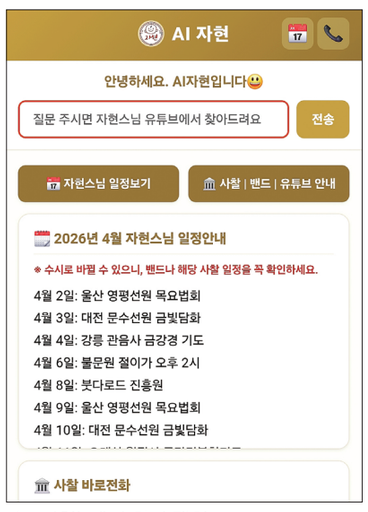
주제 발표 후에는 차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특강 '인간지능, 인공지능 그리고 공공지능'이 진행되며, 이규미 나우리심리상담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참가 신청은 구글폼으로 할 수 있고 참가비는 일반 5만원, 회원 4만원, 학생 3만원이다. 010-2217-6921

이현희 수습기자

AI로 만나는 자현 스님

스님 챗봇 'AI 자현' 출시돼
유튜브 법문 기반 답변 제시



'AI 자현' 메인 화면 캡처.

한국불교학회장이자 중앙승가대 교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현 스님의 가르침을 AI 챗봇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됐다.

서울 필동에 소재한 월정사 불교문화원(이하 문화원)은 "자현 스님의 가르침을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만날 수 있는 'AI 자현(https://aijahyun.guru)'이 공식 출시됐다"고 4월 27일 밝혔다.

문화원에 따르면 'AI 자현'의 개발은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자현 스님의 노력이다. 출가자 감소 등 여러 이유로 절에 가도 스님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다양한 경로에서 대중과의 접점을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별도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로 접속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챗봇의 전문성이다. 'AI 자현'의 챗봇은 일반적인 AI와 달리, 자현 스님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법문 영상 2500여 개를 집중적으로 학습했다. 이를 통해 자현 스님의 관점과 말투를 반영한 답변을 제공하며, 텍스트 답변과 함께 해당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바로 추천해 준다. 신도들은 텍스트로 핵심을 파악한 뒤, 스님의 생생한 영상 법문으로 정진을 이어갈 수 있다.

'AI 자현'은 웹 기반으로 제작돼 안드로이드, 애플(iOS) 등 플랫폼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홈 화면에 추가' 기능을 이용하면 일반 앱과 동일하게 아이콘이 생성돼 언제 어디서든 터치 한 번으로 접속할 수 있다.

자현 스님은 "급변하는 시대에 스님을 궁금해하면서도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스님에게 쉽게 묻고 바로 답을 받을 수 있는 이 챗봇이 스님을 직접 만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황룡사지 출토' 공예·생활용구 최초 공개

경주 신라미술관 새 단장
선방사 탑지석 등 전시


신라 불교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상설전시관인 신라미술관 전경.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윤상덕)이 신라미술관 상설전시품 일부를 교체하고 그동안 수장고에 머물러 있던 불교문화유산을 대거 공개했다. 특히 황룡사지 출토품, 선방사 탑지석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돼 눈길을 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미술관 상설전시를 교체하고 정비해 4월 20일부터 총 103점의 유물을 새롭게 전시한다"고 밝혔다.

신라미술관은 신라 불교 문화를 소개하는 상설전시관으로 불교조각의 조형미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불교조각실과 신라 최대 사찰인 황룡사를 비롯해 경주 지역 사찰 유적에서 출토된 불교 공예품 및 사찰 관련 유물을 전시하는 불교사원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전시 교체는 5월 프랑스 파리 기메아시아예술박물관이 개최하는 신라 특별전과 6월에 개막하는 황룡사지 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에 다수 상설전시품을 출품해 발생하는 기존 상설전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거나 연구·보전을 위해 제한적으로 소개됐던 소장품들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불교사원실 내 황룡사지 전시 구역에는 황룡사 전각 터와 회랑 터 등에서 출토된 불교 공예품과 사찰 생활용구 93점을 새롭게 배치했다. 박물관 측은 "소장품들은 기존 특별전 및 학술보고서를 통해 부분적으로 공개된 바 있으나, 상설전시 공간에서 관람객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통해 황룡사의 사찰 운영, 일상, 신라 불교 문화의 구체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석문 자료로만 알려져 왔던 선방사 탑지석도 최초 공개된다. 이는 경주 남산 선방곡에 위치한 선방사 탑 안에 봉안됐던 지석으로 1926년 경주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인근에서 발견됐다.

야외 전시장에 전시됐던 나한상은 불교조각실 내부로 옮겨 감상의 몰입도를 높였다. 경주 석장사 터에서 출토된 탑·불상무늬 벽돌도 오랜만에 전시장에 다시 공개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앞으로도 새롭게 발굴·발견되는 신라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소장품의 순환 전시와 연구 성과를 적극 반영해 관람객이 다양한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상설전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신라 문화의 깊이와 가치를 충실히 전달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지운 수습기자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